

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좌

# 독일의 문화와 예술

11주차: 독일문학사

담당교수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경희

# 목차

01

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02

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03

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 01

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괴테

쉴러

중세 기사문학

게르만 신화

헤르만 헤세

그림 동화

카프카

로렐라이

토마스 만

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- 일반적으로 독일어로 쓴 문학 작품을 지칭
- 독일 이외에도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는 오스트리아, 스위스, 예전의 체코 등이 포함
- 독일어가 생기기 시작한 중세 후기(750년 경) ~ 현대 독일 문학
- 작품의 주제가 무겁고, 철학적, 사색적임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	독일 문학사
8~14C	중세문학 (750~1500)
16C~17C	휴머니즘과 종교개혁 (1500~1600)
17C	바로크(1600~1700)
18C	계몽주의(1720~1785)
	질풍노도(1770~1785)
	고전주의(1786~1805)
	낭만주의(1798~1830)
19C	비더마이어(1815~1850)
	청년독일파(1830~1850)
	시적사실주의(1850~1890)
	자연주의(1880~1900)
	세기전환기 문학(1890~1920)
20C	표현주의(1910~1925)
	망명문학(1933~1945)
	최근의 문학(1945~현재)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## 계몽주의 (1720~1785)

- 이성의 힘으로 자연과 인간 관계, 사회와 정치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명료하고 자명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고 낙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대 정신
- 중 세 적 인 기 독 교 신 앙 과 신 학 의 절 대 적 권 위 로 부 터 의 해방과정으로서 등장
- 칸트: “계몽이란 무엇인가?”
- 데카르트: “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.” (Cogito, ergo sum)
- 레싱(Gotthold Ephraim Lessing)의 『현자 나탄』: 반지 우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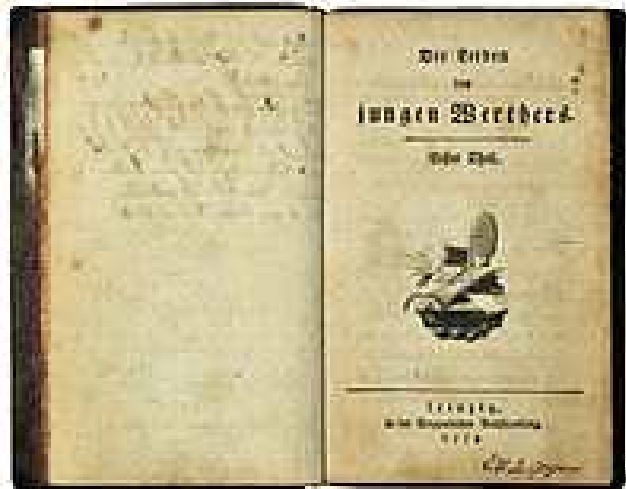
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## 질풍노도 (1770~1785): Sturm und Drang

- 계몽주의 사조에 반항하면서 감정의 해방·독창성·천재성을 부르짖은 독일 젊은 작가들이 표방한 문학 운동
- 사회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단기간에 소멸
- 오성보다는 감성을 중시, 이후 낭만주의에 영향
  
- 괴테(Johann Wolfgang von Goethe)
- 『젊은 베르터의 고뇌』같은 소설이 있지만 시와 희극이 주가 됨

# 1. 계몽주의에서 질풍노도까지



괴테 - 젊은 베르터의 고뇌  
(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)

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좌

# 독일의 문화와 예술

11주차: 독일문학사

담당교수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경희

# 02

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고전주의 (1786~1805)

- 정형화된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 사조
- 일반적으로는 한 나라의 작가가 조망할 수 있는 시기 안에서 시간을 뛰어넘어 통용되는 작품을 창작하고, 이들 작품 속에서 민족의 특수성을 아울러 표출시킬 경우 “고전주의 시대”라고 칭함
-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예술을 동경하고, 본받으려고 하는 성격을 지님
- 계몽주의적인 과도한 오성과 질풍노도의 과도한 감정을 모두 거부하고 **오성과 감성의 조화 추구**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고전주의 (1786~1805)

- 쉴러와 괴테
  - 서신 교환 등의 교류를 하며 서로의 문학활동에 큰 영향을 미침



“쉴러 본연의 창작력은 이상적인 측면에 있으며 이점에 있어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작가는 독일문학과 외국문학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” - 괴테 -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고전주의 (1786~1805) ~ 낭만주의

-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 있는 작가들
  - 프리드리히 뢰를린(Johann Christian Friedrich Hölderlin)
  - 장폴(Jean Paul)
  -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(Bernd Heinrich Wilhelm von Kleist)



<뢰를린>



<장폴>



<클라이스트>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계몽주의의 이성적 사유 대신 아름다운 상상의 세계, 인간과 자연의 근원, 무의식과 혼돈, 무질서의 세계를 지향
- 계몽주의적 이성으로부터 거부되었던 광기, 병, 몽상, 감성 등과 같은 개념들이 새롭게 평가됨
-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시기, 민족의식의 확대
- 1795년 이후 고전주의의 중심지 바이마르를 향한 젊은 세대의 반기
- ‘낭만적인 romantisch’ 세계로의 접근을 시도함
- 고전주의의 휴머니즘적 정서 대신, 독일의 풍경 등 자연 속에서 체험될 수 있고 예술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종교적 정서가 환기됨

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빙켈만의 그리스 정신으로부터 벗어나 독일의 중세에 관심
- 중세가 문화의 '황금기'로 간주됨
- 고전주의 식의 모방된 주어진 세계가 아니라 창조적인 주관성에 의한 창작을 통해 예술적 천재성 강조
- 고대 그리스, 로마의 낮의 세계를 지향한 고전주의 예술과는 달리, 낭만주의에서는 밤이 삶과 죽음, 창조력을 간직하는 비밀로서 찬양됨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‘무한한 것(das Unendliche)’에 대한 동경, 자아의 상상력을 세계 창조원리로서 절대화
- “유한한 것에 무한의 외관을 부여함으로써 세계는 낭만화되어야 한다.”(노발리스)
- 예술형식, 각 장르의 융합, 형식화에 고정되지 않고 항상 ‘진보적으로’ 새로운 생성활동을 계속하고자 함
- 합리주의를 벗어나 상상력의 우위 속에서 심오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음 (‘진보적 보편문학 progressive Universalpoesie’)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전기 낭만주의
- 쉴레겔 형제(Friedrich von Schlegel, August Wilhelm von Schlegel)
- 노발리스 (Novalis) - 밤의 찬가, 푸른꽃



노발리스 (Novalis)

Novalis



Heinrich von Ofterdingen

노발리스 (Novalis) - 푸른 꽃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후기 낭만주의
  - 그림 형제(Jacob Grimm, Wilhelm Grimm) - 그림동화
  - 호프만(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)
  - 아이헨도르프(Joseph Freiherr von Eichendorff)



<그림형제>



<호프만>



<아이헨도르프>

## 2.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까지

### 낭만주의 (1798~1830)

- 회화에서는 색채적 요소가 전면에서 부각됨
- 낭만주의의 보편적인 자연친화에 따라 풍경의 묘사가 미술의 주된 테마
- 그러나 자연스케치의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 영혼의 정서로서 풍경을 그림

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  
<안개바다 위의 방랑자>



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좌

# 독일의 문화와 예술

11주차: 독일문학사

담당교수 홍익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경희

# 03

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비더마이어(1815~1850)

- 독일연방 성립부터 3월 혁명에 이르는 메테르니히 체제하에서 프랑스 7월 혁명(1830)의 정치적 반동에 대한 환멸과 함께 소시민적인 자족감이 뒷받침된 비정치적·퇴영적인 풍조가 당시 독일의 일반적인 특징
- 정치적 압박하에 있던 시민은 욕구의 배출구를 교양 면에서 찾으려 하였고, 조출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즐기려는 경향의 문학과 과거의 낭만적인 세계로 도피하는 경향의 문학이 출현

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비더마이어(1815~1850)

- 소시민적 정취에 함몰하는 자족의 생활과 봉건 압제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치의식 사이의 갈등
- 안네테 폰 드로스테-휠스호프(Annette von Droste-Hülshoff), 에두아르트 뫼리케(Eduard Friedrich Mörike)



<안네테 폰 드로스테-휠스호프>



<에두아르트 뫼리케>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청년독일파(1830-1850)

- 정치적 · 사회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념의 세계에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던 고전주의, 낭만주의 문학의 종언을 선언
- 문학의 정치참여를 모토로, 절대주의 국가의 부정, 사상과 신앙의 자유, 인권의 확립, 여성해방 등을 공통의 목표 설정한 민간단체
- 정치와 문학'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기함
- 하인리히 하이네(Heinrich Heine)
- 게오르크 뷔히너(Georg Büchner): <당통의 죽음>, <보이체크>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시적 사실주의 (1850~1890)

- 사실주의 :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문학적 경향
- 고전주의, 낭만주의 모두 관념론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사실주의는 여기서 이탈
- 낭만주의의 반동으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의 시대가 시작
- 예술과 삶의 합일 요구, 문학의 대상으로서 일상적 현실 강조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시적 사실주의 (1850~1890)

단순히 현실의 객관적 묘사에 머무르지 않음

- 인식에 포착된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서도 현실적 다양성이 가능한 한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실주의적 경향과 다름
- 현실의 충실한 묘사에 시적 진실이 필요하며, 경험 현실의 객체성과 작가의 주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시적 사실주의 (1850~1890)

- 폰타네(Th. Fontane): <에피 브리스트>, <슈테힐린> 등
- 켈러(G. Keller): <녹색옷의 하인리히>, <옷이 날개다>
- 슈토름(Th. Storm): <임멘호수>
- 뷔히너(G. Buechner): <당통의 죽음>, <보이체크>



<당통의 죽음>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자연주의 (1880~1900)

- 자연주의 : 환경에 종속된 인간

에밀 졸라, 톨스토이를 필두로 문학은 역사적, 사회적, 발생적 그리고 심리적 법칙성을 탐구해야 하며, 자연과학적인 정확성을 통해 표현됨으로써,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문학사조

- 에밀 졸라(E. Zola)의 <실험소설론>

과학자가 실험실에서 하듯이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인물을 연구하고 그 인물이 어떤 환경, 직업, 교육관계, 우발적인 어떤 사건에 처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하는 것이 바로 소설이다. 따라서 소설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기록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자연주의 (1880~1900)

- “우리는 성격에 대해, 정열에 대해, 인사에 대해, 또 사회의 모든 관념에 대한 절개 수술을 가해야 한다. 과학적 연구, 실험적 추적이야말로 이상주의의 가상을 뚫고 현실과 무관한 공상의 얘기를 관찰과 실험의 얘기로 환치하는 것” - 에밀 졸라 -
- 사실주의는 결국 현실의 총체적이고 충실한 ‘재현’을 의도하는 예술, 반면 자연주의는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려는 뜻에서 ‘실험적 소설’임을 강조

### 3. 청년독일파에서 자연주의까지

#### 자연주의 (1880~1900)

-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(Gerhart Hauptmann)

<선로지기 킬>, <직조공>, <해지기 전>

